

## 防火役軍으로서의 矜持를 갖자

어떤 사원(寺院)의 건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세 인부에게 그 소감을 질문했던 바, 그 첫째 사람은 "죽지 못해 이것을 하는데 귀찮게 소감은 무슨 소감인가?"하고 대꾸하였고, 둘째 사람은 "나와 가족들 입에 풀칠하려고 마지 못해 이것을 한다"고 한 데 반하여, 셋째 사람은 "내 비록 집짓는 재주 밖에 없으나 이 보잘 것 없는 재주로서 신(神)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다니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워 정성을 쏟을 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그 소감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가 이렇듯 큰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다.

영어로 "직업"을 "Vocation" 이라고도 하거니와 이는 "신의 소명(召命)"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우리에게도 "천직(天職)"이란 단어가 있지만, 직업은 하늘이 주신 거룩한 것으로,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윤리관이 서양 사회의 발전의 모체가 되었다고 막스 베버도 갈파한 바 있다.

모든 기업의 목표가 인류에 봉사함에 있음이 사실이라 하여도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느낌과 긍지는 사람에 따라 판이하다고 본다.

우리 가운데는 "대학을 나와 겨우 폴리테스터나 매고 다니며 점검이나 하러다니다니..."하는 식으로 자기 비하(卑下)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생산 공장에 취직하여 소비재물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만이 자기 전공을 살리는 길이며 이것은 반드시 안전점검에 비하여

사회에 더욱 봉사하는 방법이며, 더욱 보람된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보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묵묵히 점검, 연구, 상담 등을 시행하는 이상으로 보람된 일도 그리 많지 않을 성싶다.

또 혹자는 "계속적인 점검 실시에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의 개선이 되지 않으니 보람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커다란 개선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해마다 소폭 개선은 끊임없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 분석 자료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신축 건물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만약 우리 협회가 존재하지 않았던들 우리나라의 소방 형편이 과연 어떠하며 화재 피해가 어떠했었을까 하는 데 대한 냉철한 고찰을 해 보아야 하겠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업무에 대한 보람과 직결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 NFPA 기술 분과 위원회 위원들은 한푼의 보수도 받지 않고 있으나 방재 기준의 연구 제정을 통하여 국민에 봉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그 직을 대단한 명예로 여긴다고 한다.

하물며 기준의 제정이 아닌 직접적인 점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NFPA 위원들보다 훨씬 영예로운 직업, 아니 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술 직원들은 모름지기 자기 업무에 대하여 자량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적극적, 긍정적 자세에 따라야 협회 발전도 이룩될 것이 아닌가 한다.